

아버지의 길

“넌 원서 쓰는데 얼마 줬어? 너한테도 돈을 줘야 써준다고 했어?”

고3 겨울, 모두들 대학 입학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때였다. 나는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던 이야기였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써달라 이야기하면 담임선생님은 ‘성적이 모자란다. 그 학교는 이런 점에서 권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돌려보냈다. 고심 끝에 촌지를 준비해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써주신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그 선생님 별명은 오래전부터 돈○○였고 그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쳇, 너는 아버지께서 선생님이라 너한테는 달라고 안 했나 보지?”

친구가 말하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 역시 내 성적으로는 안정권이라고 할 수 없는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선생님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형편에 적게는 몇십 많게는 백 단위의 돈이 오가야만 내가 쓰고 싶은 학교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선생님이 암암리에 학생의 인생을 볼모 잡아 잇속을 챙겼다는 사실이 나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내가 생각해오던 교사의 참모습과 신뢰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지난날 잠깐 품었던 어리석은 생각이 낫기 때문이었다.

나의 아버지 역시 선생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촌지나 뇌물이 공공연하게 여겨질 때였다. 집으로 선물이나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었다. 공무원 아파트에서 살던 나는 그런 풍경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누구는 그런 돈을 받아 주식을 해서 큰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했다. 누구는 스승의 날에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 다 신고 올 수도 없었다며 자랑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조금 달랐다. 스승의 날이나 새 학기가 되면 돈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중히 거절하셨다. 한사코 거부할 수는 없는 관계인 경우, 꼭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돌려보내셨다.

다른 교사의 자녀들은 늘 나보다는 여유 있었고 넉넉했다. 나는 그 흔한 학원도 과외도 한번 받을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위장전입, 교육청 인맥 동원 등을 이용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데, 나는 교사 자녀치고는 넉넉지 못한 생활을

했었고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로 배정되었다.

가끔은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했었다. 처가댁에도 생활비를 드리고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며, 투병 중인 할머니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던 아버지에게 사실 그 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다들 받는데…….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건데 저렇게 정 없이 꼭 내쳐야 하는 걸까? 그 돈이면 나도 학원에 다닐 수 있고, 아버지도 저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그날 저녁, 아버지께 여쭙보았다.

“아빠는 왜 촛지나 선물을 받지 않아요? 감사 인사 정도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가 한번 웃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전혀 받지 않은 건 아니야. 20년 교직 생활에서 딱 한 번 촛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

아버지께서 초임 시절 시골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한 학생의 할머니가 교무실로 찾아오셨는데, 방금 발일을 마치고 오신 듯 몸빼바지를 입고 일모자를 쓰셨으며 허리춤에는 전대까지 차고 계셨다고 한다. 자꾸 말썽인 자기 손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며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다고 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전대 속에서 꼬깃꼬깃한 손때 묻은 오천 원짜리 한 장을 어렵게 내미시더라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손녀 맛있는 거나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께서는 혹시 그 돈이 적어서 안 받으시느냐고 조심스레 물으셨다 했다. 아버지는 만약 그 돈 받기를 거절하면 그 할머니에게 상처가 될 듯도 싶었다고 한다. 손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받고 대신 그 돈은 그 학생에게 도움 될 곳에 직접 쓰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오천 원짜리 지폐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저 지폐가 단 한 장이 아닌 열 장이었더라면, 아니 백 장이었더라면.

단 한 장이기에,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졌기에 받은 것인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것은 마음일까, 아닐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이었어. 그리고 선물 혹은 뇌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지.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며 그래도 빈손으로는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혹시 촌지를 주지 않으면 내 아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지. 어쩔 땐 서로 주고받는 인정 차원의 거절하기 어려운 정도의 먹거리 같은 거, 그런 적도 많아.

그런데 한 번 집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점점 그게 당연해지고, 한 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이 말라지는 법이야. 그 한 번이 무서운 거야.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면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에는 얼마든지 그 핑계라는 것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 그때 그 돈이 오천 원이 아니라 오만 원이었더라면, 오백만 원이었더라면, 또 그걸 마음으로만 생각하여 아빠가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결심했어. 정말 마음만 받자고. 그리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거든 반드시 그 값 이상 하는 것으로 돌려주자고.

백절불요(百折不撓),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청렴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인내심을 시험당하는 어려움도 견뎌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그날 이후에 아빠가 정한 양심의 기준이야.”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공직자로서 청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시고 황조근정훈장까지 받으시며 퇴직하셨다. 아버지는 끝끝내 당신이 정하신 양심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직장 생활에서는 커다란 부패와 비리와는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 외 수당, 회식비, 출장비, 업무 추진비, 물품, 성과 책정 등 소소한 유혹과 갈등의 상황은 적잖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부풀려 책정하거나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청구하고 회사 물건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런 소위 ‘작은 빵땅’은 횡령의 축에는 끼지 않으며 그 정도는 ‘귀여운 수준’, ‘못하는 게 바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인사철이 되면 청탁이 만연했고 성과 역시 부풀린 수치와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별히 회사 내에서도 ‘청렴’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청탁 금지법’ 이런 것은 남의 일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사실 그리 큰일은 아닌 수준이었다. 만연한 일이었고 나만 깨끗한 척하며 안하는 것도 다른 동료들의 눈살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해도 불편, 안해도 불편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3년 만에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깨달았다. 아버지 같은, 공직자가 되고 싶었다. 처음 면접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의 13대 의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무와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나는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며 어떤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가. 공무원의 기본 덕목은 무엇이고 나에게 공직자의 자질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았다. 내가 내린 답은 ‘소명의식과 청렴 정신’이었다. 비록 내가 정약용 선생이나 이순신, 황희 선생처럼 위대한 청백리의 길을 걷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청렴을 지키는 일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작은 비리와 부패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변이 아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벌써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3년이 되어간다. 나는 그때 생각했던 초심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일하면서 다양한 군무원과 군인들을 만났다. 어떤 분은 복무와 수당, 성과, 인사, 회계 등에 있어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어떤 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융통성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중 한 사무관은 가끔 전기 코드 하나도 일일이 뽑고 다니시고 퇴근 시간 10분을 남기고 출장지에서 돌아오셨다. 비상이 떨어지면 개인 연가나 권리도 포기

하고 자리를 지키기도 하셨다. 남들은 휴가처럼 즐기는 의례적인 교육이나 연수도 대충하는 법이 없이 원칙과 규정을 지키셨다. 모든 직원에게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게 대하시는 사무관님을 보면서 후배들은 너무 뻘뻘하다며 불평하기도 하고 했다. 그분은 이제 정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천생 공직자의 행보를 여전히 하루하루 걸으시는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답답해 보이는 걸음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종종 일부 공직자의 잘못이 보도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들은 말한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내 세금이 아깝다고.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 누군가 한 사람의 발걸음이 그곳에 흔적을 남기고 그 뒤를 이어 다른 걸음이 이어지고, 그렇게 그곳은 길이 되는 것이다.

학창시절엔 촌지나 뇌물이 만연했지만 지금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처럼, 부모님의 작은 행보가 자식인 나에게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기준으로 이어진 것처럼.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청렴이란 덕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실천이 모인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